

보도시점 (온라인) 2026. 3.25.(수) 08:00
(지면) 2026. 3.25.(수) 석간

지방 '식품사막화' 문제, 행정안전부와 기아가 손잡고 해결 나선다

- 행정안전부-기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사막화 해결 업무협약 체결
- 기아는 차량 등을 지원, 초록우산·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운영을 담당
- 경북 의성군 및 '26년 추가 공모 지역 대상 신선식품 배송 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아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기아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 등 당면한 지역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인구감소지역은 필수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기아는 지방소멸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의 고리를 끊기 위한 상생 협업을 수행한다.
-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식품 사막화* 해결을 위한 신선식품 배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 교통 인프라 미비·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선식품 판매처에 접근이 어려운 현상
- 신선식품 배송 사업은 식품소매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고령층에게 육류, 어패류 등 신선식품을 배달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경북 의성군 6개 면*을 1차 대상지로 정해 우선 시행한다.
- * 안평면, 사곡면, 구천면, 신평면, 춘산면, 안사면
- 또한 올해 상반기 중 2차 대상지 선정 공모를 거쳐 1개 기초 지방정부를 추가로 선정하고, 기아와 협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신선배송 사업을 위한 참여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기아는 자사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피브이5(PV5) 차량 제공한다. 또한 지역 식료품점과 계약하여 신선식품을 조달하고, 유선 전화 상담실(콜센터)를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내 신선식품 배송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 기아의 사회공헌활동 동반자인 초록우산(NGO)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신선식품 배송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고령층 등의 물품 구매 대행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완화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생활 돌봄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소셜) 벤처 등을 총칭
 - 행정안전부는 신선식품 배송 사업 대상 시군과 기업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며, 시군의 신선식품 배송 기반 조성 및 연계 사업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등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아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프라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신선식품 배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박중근 (044-205-3501)
	균형발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엽 (044-205-343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안부-기아 간 민간역량 활용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최준영 기아 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